

마음 열기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다.

Faith 비전 캠프에서 기대하는 것, 혹은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말씀 나누기

사도행전 1장 9-14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9-1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습니다(9절).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전해주었습니다(10-11절).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은 **첫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는 도둑같이 홀연히 임하기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살전5:2;벧후3:10;계16:15). 하지만 재림하실 그때에는 온 인류가 분명히 알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선가 나타나 스스로가 재림 예수라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사이비 이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입고 계셨던 육신은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도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고생과 수고, 희생과 눈물,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산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12-14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잡으려고 경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4-5절). 이들이 이 약속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믿음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도마는 못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취급하며 배척했던 자들이었습니다(요7:5;막3:21). 이처럼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소망을 깨닫자, 담대하게 약속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자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처럼 보잘것 없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영적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함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부활이 속죄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매이거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한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사람과 세상과 어둠의 역사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성도의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통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와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영적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이 깨달아지고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적 예루살렘에 거하여, 죄에서 자유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며 온 세상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영적 예루살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변화되었듯, 나도 굳어있던 생각이나 습관이 변화되었던 적이 있나요?
3. 나는 기도에 힘쓰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힘써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불신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10월 바이블로 가이드 (1) : 레위기 (상)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부르십니다. 10월 바이블로(레, 벧전후)의 주제는 “거룩한 부르심과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 1-16장에서 “부르심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 5가지 제사와 제사장: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기 위해 마련하신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흠 없는 제물의 피 흘림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 대속죄일(16장): 1년의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씻어내는 날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떠나가듯,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이번 주 묵상 포인트는 ‘예배의 감사 회복하기’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자신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형식적인 의무로 여기지 않고, 나를 살리신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로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Faith 비전 캠프 가운데에도 예배의 감사, 부르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FAMILY 나눔

2026년 9월 27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 9-14절

